

법정림에 의한 보속생산원칙이란 것은 한 농가의 생산체계에 비유해서 이해할 수 있다. 여기 한 농가가 있고 주로 쌀농사에 의존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해마다 쌀 50가마니의 수확이 있다면 그 집의 생활의 큰 줄기는 지탱될 수 있다. 이러한 수확은 소유하고 있는 농토에서 해마다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소위 보속생산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 농가는 그 농토에서 정상적인 작업으로서 이러한 보속생산이 중단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그러한 토대 위에서 그 농가의 생태계는 항상성(恒常性)을 유지하면서 살아왔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살아갈 것이지만 나아가서 무언가를 고안하고 개량해서 발전적인 것을 시도할 것이다. 따라서 보속생산이란 것은 현상유지만이 아니라 발전적 보속을 지향할 것이다.

법정림은 임업경영에 있어서 이와같은 생산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산림의 구조배치 등을 합리화한 것으로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향해 나가는 모범적인 상태 또는 개념이라고 보아도 좋다. 교과서적으로 격식화된 엄정한 뜻의 법정림의 실현을 그대로 눈앞에 두자는 것은 아니다.

독일임업에서 싹이 튼 보속원칙은 18세기 중반까지는 앞으로 영구히 목재수확을 지속시켜겠다는 뜻이었다. 그러하던 것이 19세기에 들어 와서는 목재수확을 『영구히』 『균일적』으로 하겠다는 보속원칙을 주장하면서 Hundeshagen은 1826년 법정림의 개념을 확립하고 명칭을 붙였다. 이것은 다시 Heyer에 의해서 1841년에 보완되고 소위 법정림사상이 성립하기에 이르렀다. 이 개념은 그 이후의 임학과 임업의 지도원칙으로서 거의 절대적 자리를 차지하면서 임업경영(산림계획)의 중심적 지주로 되어왔다.

그 뒤 Gayer는 진정한 보속은 입지(환경인자, 주로 토양)의 자연적 생산력을 최고기능수준에 있게 함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같은 새로운 뜻으로 파악되는 보속개념은 이때까지의 양적 형식적

원칙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토지생산력의 측면으로 파악한 것으로 「목재생산의 보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종래의 보속개념은 토지생산력의 구체적인 나타남 즉 수확량을 따졌던 것으로 「목재공급의 보속성」으로 말할 수 있다.

그 뒤 1967년 Speidel은 임업경영의 영속성, 항상성, 균등성에 대한 노력은 유형 및 무형의 목적설정 요소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했으며 특히 국토보전적 급부와 보건휴양적 급부를 보속성의 내용에 넣는 것으로 해석했다. 즉 그는 나무와 숲의 이용을 인류사회의 후생복지에 두는 광의의 임업경영은 인적으로 물적으로 경제적으로 조직된 유기적 존재라고 했으며 이 유기적이고 통일적인 조직체로서의 경영을 동적경제(動的經濟) 아래에서 운영하자면 「경영유지로서의 보속성」이 크게 강조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임업경영의 고정적 또는 소극적인 지속이 아니고 경영의 활동능력의 유지이고 실제 자원의 유지이며 사회의 변동에 유기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발전적 유지라야 한다고 했다.

이와같이 보속원칙의 개념 즉 법정림의 개념은 시대의 흐름과 더불어 변화를 거듭해 온 것으로 그 시대의 인류가 산림에 바라는 것과 제반 사회상의 변동을 수용해서 발전적인 틀로 가다듬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8. 미국의 다목적이용 보속원칙

미국에 있어서의 산림경영은 목재의 보속수확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숲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가치생산을 보속시키자는 뜻이 일찍부터 담겨져 있었다. 이것이 곧 다목적이용 보속수확(多目的利用 保續收穫)의 개념이다. 이 방면개념의 발전을 언뜻 살펴보면 1872년 세계최초의 국립공원인 Yellowstone 국립공원이 설립되었고 1924년에는 원시지역(wilderness area)이 처음으로 설정되어 그 지역의 보호와 유지에 중점을 두게 되었고 1964년엔 원시지역법이 제정되었고 1966년에는 연구자

연지역(research natural area)이 설정되었다.

1960년에는 국유림의 관리경영의 기본원칙으로 다목적이용 보속수확법(多目的利用 保續收穫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국유림의 다양한 자원인 목재, 물, 풀, 야생동물, 보건휴양 등을 보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내용은 세계적인 공감을 얻고 뜻이 확산되어 나갔다.

196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서는 자연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급속도로 고조되고 1970년에 국가환경정책법이 제정되고 1976년에는 국유림경영법이 제정되어 국유림에 대한 보건휴양, 원생적 자연의 보호, 야생동물의 보호, 목재생산, 물, 광물 등 12개 항목에 대한 자원의 최종목표를 설정하고 산림의 기

능 및 이용목적들을 뚜렷이 하여 산림구분 및 취급방향을 확립한 것이 가장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처럼 미국의 임업경영은 초기부터 소위 공익적 효용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그 가치의 보

림으로 된 독일의 산림지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평지림이란 것은 환경인자의 균일성이 크게 보장된다.

우리나라처럼 산세와 지형이 복잡하고 기복이 심한 곳의 산

속적 생산에 관심을 쏟았다는 것이 독일의 그것과 성격을 다소 다르게 하고 있다. 그러나 두 나라간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보속적으로 제반 가치를 생산해야 한다는 점은 공통되고 있다.

9. 법정림과 환경론

언급했듯이 법정림의 개념은 다소의 변질을 거듭해 왔지만 산림이 경영의 대상이 되고 경제사회에서 군림하기 위하여서는 목재생산의 보속에 중점을 두지 않을 수 없다. 이 원칙의 발상을 보게 된 곳이 거의 평지

림과 독일의 평지림을 그대로 비교할 수는 없다. 독일에 있어서는 숲을 법정림의 상태로 몰아가기 쉽다. 동시에 목재생산의 지속성이 보장된다면 그 숲에서 얻어지는 공익적 효용은 잘 따라올 수 있다. 법정림이 건전한 인공생태계라면 그곳에서 추출되는 물, 공기, 국토보존, 야생동물 보호 등의 효용도 항상성을 가지면서 보속된다는 견해를 말할 수 있다. 다만 목재생산을 보속의 척도로 삼고 다른 효용은 이에 수반될 수 있다는 생각에는 무리가 없지 않다. 법정림이 가려 야생동물보

국가검정품 꿀벌 노제마병·부저병 전문치료제 후미딜®-B(Fumidil®-B)

후미딜®-B를 사용하는 양봉가들은 “봉충판이 노랗게 되고, 빈방이 없어진다.”고 얘기합니다. 프랑스 사노피사에서만 유일하게 생산되는 후미딜®-B는 전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특장점

- 노제마병(Nosema apis) 및 부저병(Faulbrood)의 전문 치료제입니다.
- 꿀벌의 폐사율을 줄여 꿀생산량을 증가시킵니다.
- 치료 및 예방효과가 우수합니다.
- 안전성이 우수하여 꿀벌에 대한 약해가 거의 없습니다.
- 빈방이 없는 충실한 봉충판을 만들어 줍니다.

포장단위/단가 : 25g/8,000원 475g/140,000원

후미딜®-B는 사용해본 양봉가만이 다시 찾는 좋은 약입니다

일진실업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2동 764-11 수입원
 ☎ (02)923-3470 팩스: 927-3983 (주)성일파마

시양과 급수작업이 단번에 끝나 시양노동력으로부터 이방되는

수위자동줄사양기 실용신안등록 제096017호외 11건

하나의 시양탱크에 줄사양기가 들어있는 전 봉군을 호스로 연결하고 한번 시양 밸브를 열면 줄사양기는 수위감지 부저가 있어 각군마다 자동으로 시양과 사양량이 조절된다.

’97신제품의 성능 : ■ 특허등록이 된 줄사양기는 기존 제품의 단점을 완전히 보완하여 노즐 막힘이 없고 사양은 더욱 빠르며, 사양액 넘침이 전혀 없고 견고하여 수명이 반 영구적이다. ■ 사양실빠짐 방지막 부착으로 빠져죽는 벌이 없다.

좋은 점 : ■ 기존보다 몇 백배 이상의 일손 절감과 이른 봉부터 늦가을까지 군세와 관계없이 적은 량부터 많은 량까지 각군마다 사양관리할 수 있으므로 번식·화분·제리 생산에 엄청난 경제적인 이득을 주는 사양기다. ■ 설치와 이동이 간편하고 누구든지 사양할 수 있다.

취급품목 : ■ 수위자동줄사양기 ■ 수위자동줄급수기
 ■ 수위자동평면사양기 ■ 사양필터

태원산업 대표 노태원
 ☎ 678-850 경남 합천군 청덕면 두곡리 443번지
 ☎ (0599) 33-9548, FAX ; (0599) 33-9548
 우체국온라인 : 610667-0005227 농협온라인 : 843092-56-005836

No 0271011472494 한미인쇄제작

임업과 임학

4

(사)한국아까시나무연구회

회장 임경빈 (농학박사·전서울대교수)

호에 중점을 두는 산림관리라면 목재에 기준을 두는 평가가 타당할 수 있느냐 하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 몇 가지 견해

그런데 현재 산림의 공익적 효용을 말하는 임업선진국은 목의 보속생산을 계획한 체계가 널리 강구되어 있고 그러한 여유있는 바탕에 서서 공익적 효용을 부가시키고 있는 느낌이다.

그들은 의례히 공언한다. 즉 목재기근, 목재부족의 시대에 있어서는 그에 부응하는 정책적 개로 생산력 추구가 큰 가치를 지녔었고 그에 타당한 기술이 적용되었다. 말하자면 국민경제가 직접 숲을 앞에서 잡아당기는 형식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숲에 대한 가치관은 다양화해서 산림환경은 생태계로서의 자연, 부(富)로서의 자연, 정신세계의 형성에 참여하는 풍경으로서의 자연 이러한 3가지 층(層)이 있고 인간과 숲의 공생을 도모하는 산림사회의 형성이 요구된다. 생산으로부터 환경으로라는 큰 전환이 있고 지금부터는 사회적 공용지본으로서의 산림이란 가치기준이 부각될 것으로 본다는 것이고 이러한 생각은 현재 우리 주변에도 팽배해 있는 느낌이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다소 상반되는 견해도 많다. 말하기를 근래 환경사이드로부터 산림을 중시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이것은 선진국들에 있어서 공통된 동향이다. 이것은 이것만으로는 매우 바람직한 것이나 산

림을 생산기반으로 하는 임업의 독특한 의의에 관하여서는 이상할 정도로 일반의 이해가 빈약하고 임업생산의 기본적 행위인 나무의 벌채를 환경보전에 대한 해로운 행위로 보는 것은 비합리적인 전제에서 비논리적인 결론을 성급하게 도출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때까지 환경보전적인 주장에 대한 임업측의 대응은 전적으로 수동적으로 대응해 온 경향이 보인다. 물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비경제적 조치를 별도로 취할 필요는 있다. 대저 자연의 생태계는 개관적 존재이고 인류는 모든 작은 부자연스러운 행위를 가하므로써 문명을 구축해 왔으므로 그 보존이라는 가치판단에 수반되는 요청은 본래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대상을 한정해서 말하는 상대적 논 의라야 한다.

인간도 생태계의 한부분이므로 그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망치는 원인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이것은 현대를 원시시대에 전주려하는 문학 청년적인 정서적 감상에 불구한 것이고 이것을 깃발로 내걸고 나서는 것은 비과학적 언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심한 표현도 읽을 수 있다.

더욱이 다음과 같은 견해는 새겨서 읽을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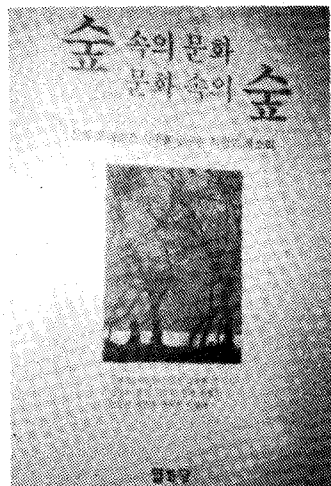
임학계에 있어서도 생태계 이론은 각 방면으로 연구되어 왔었고 1920년대에 있어서는 생태계의 추이에 입각한 산림의 갱신과 육성에 관한 기술의 적용에 관하여 특단의 노력을 경주한 역사가 있다. 그러나 그것

은 자연생태계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고 그 법칙을 살리므로써 어떻게 하면 좋은 숲을 재생시킬 것인가를 과제로 했던 것이고 우주유영(宇宙遊泳)을 방불케하는 생태론적인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견해는 더욱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생태론 적용에 관한 생태학자들의 무정견(無定見)은 최근 외래수종 식재부당론(植栽不當論)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요점은 향토수종의 육성으로서 숲을 재생해야 한다는 지론이다. 물론 향토수종으로서 만족할 수 있는 숲이 없으면 상관 없는 일이지만 과거 세계의 조림역사를 살펴볼 때 외래수종으로서 얻은 성과는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외래수종 부당론을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판에 박힌 듯이 다음과 같은 말을 되풀이 한다.

- 『그 수종은 토양의 유실을 촉진한다』
 - 『토양을 척박하게 만든다』
 - 『토양을 산성화시킨다』
 - 『다른 민족의 악의에 의해서 심어졌다』
 - 『목재의 이용가치가 낮다』
 - 『하층식생의 자람을 저해한다』
 - 『토양수분을 너무 소비한다』
 - 『지하수위를 낮게 만든다』
 - 『떨감으로서 열량이 낮다』
 - 『토양을 독화(毒化)한다』
 - 『다른 나무를 못살게 한다』
- 등 좌충우돌식 발언인데 이것은 조림기술상식을 벗어난 것으로 그 저의는 자연생태계 유지를



하고서 일반산림에 있어서는 그것을 생산기반으로 하는 건전한 보속경영체제를 실현하는 것이 넓은 산지의 자연환경을 숲으로 지켜나가는 데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것을 국민 각 층에 홍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치를 주창하므로써 우리는 국제적인 산림환경 논의의 흐름에 동승(同乘)할 수 있다.

10. 지속성 원칙

보속원칙이 임업의 근간인 것은 어느때 가서도 변함이 없는 원칙일 것이다. 생산의 대상이 과거에는 목재에 주안을 두었지만 다른 가치에 대하여서도 그 생산의 지속은 적용된다. 보속의 계산은 한 국가 수준으로 생산과 이용의 균형으로 따질 수도 있고 큰 강의 유역을 대상으로 셈을 할 수도 있으나 되도록이면 한 경영주체에 대한 보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것은 법정림의 구조라는 것은 한 작업구역에 있어서 고찰되는 것이지 가령 한강유역의 산림지대를 대상으로 해서 설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루는 임업과학은 모든 것이 하나로 수렴되고 통제되어 가장 생산적인 숲으로 질서지어지고 조직화되어야 한다. 구슬도 꿰지 않으면 보배가 될 수 없다하듯이 우리가 다루는 개별적 연구내용이 한 줄에 꿰어져서 법정림(이 용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정상림과 같은 다른 용어로 대체하여도 좋다)의 속성(屬性)을 지향하는 생산체제에 결부되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동시에 그곳에 가장 건전한 환경이 형성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근래 보속에 대신한 느낌마저 있는 지속성(持續性)이란 용어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 용어는 1970년대 지구환경의 악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고조되고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의 이념이 자연보호측에서 대두되었다. 1976년 6월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인간환경회의를 필두로 하고 1987년 4월에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에서 「우리들이 공유하는 미래」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다음호에 계속)

첨단기술의 밀양소초

본원의 소초는 품질이 향상되었습니다. 한국 소초계의 정상을 달리는 본원 소초는 그 품질을 전국의 양봉인들이 보증하고 있으므로 유사품에 유의하시어 본원제품인지를 확인한 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올해에도 더욱 사업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응봉저소초, 재래종소초도 생산발매

- 봉산물
- 봉기구
- 종봉

밀양양봉원

경남 밀양시 내이동 911(밀양우체국앞)

☎ (0527)354-2572 · 53-5688 대표 박영순

양봉기가지제 전문 판매

- 소상 10매무창 18,000원
- 소상 12매무창 20,000원
- 소광(특제) 800원
- 광식사양기 1,800원
- 채유광 1,000원
- 정화소초광 1,800원
- 격리판 1,2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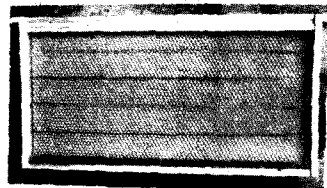


사진 : 정화소초광

상기 판매가격은 임시가격이며 소초광은 전량 밀양양봉원 소초를 사용합니다.

정화양봉원

☎ (0652) 211-4772

74-3263

☎560-200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 79-2. 한 장 희
온라인 · 국민은행 501-01-0082-265 · 우체국401901-0083012
· 농협 501010-52-129746